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②

사대가 조화되지 않으면 오장에 병 생겨

二者五藏生患之相 從心生患者 身體寒熱及頭痛口燥等 心主口故 從肺生患者 身體脹滿四肢煩疼 心悶鼻塞等 肺主鼻故 從肝生患者 多無喜心 憂愁不樂 悲思瞋志 頭痛眼闇昏悶等 肝主眼故 從脾生患者 身體面上遊風遍身 癢癢疼痛 飲食失味等 脾主舌故 從腎生患者 咽喉噎塞 腹脹耳聾等 腎主耳故 五藏生病衆多 各有其相 當於坐時及夢中察之可知

두 번째로 오장(五藏)에서 일어나는 병의 모습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오장이란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등 다섯 가지를 말한다. 오장 가운데 심장에서 병이 일어나면 몸에 한기가 들고 열이 나기도 하며 두통이 오거나 입이 바짝 마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심장이 일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폐장에서 일어난 병은 몸이 잔뜩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코가 막히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폐장이 코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간장에서 생긴 병은 즐거움이 없고 근심스럽고 슬프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력이 어두워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간이 눈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비장에서 생긴 병은 전신에 바림이 두루 들고 고질적인 가려움과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비장이 혀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신장에서 일어난 병은 목구멍이 막히고 복부가 팽만하고 귀가 어두워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장이 귀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각각 그 특징적인 모습이 있으므로 수행인이 좌선할 때나 꿈속에서 잘 관찰해야만 알 수 있다.

오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맥이 뛰는 법을 인식해야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의술을 훌륭하게 행하는 자는 사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최상의 의사는 환자의 음성만 듣고도 알고, 중간쯤 되는 의사는 얼굴색만 보아도 알고, 최하의 의사는 진맥을 해봐야만 병 증세를 안다. 하지만 수행공부를 하는 사람은 의술에 정통할 필요는 없고 병에 대한 상식만을 간략하게 알면 된다.

지금 오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에 대해 대략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령 맥이 크고 끈게 뛰면 간에 병이 난 모습이고, 맥이 가볍고 들뜨면 심장에 병이 난 모습이며, 맥이 침하게 증동하면 폐장에서 병이 난 모습이고, 맥이 구슬처럼 굴러가듯

취하고 버릴 것을 알아야 병도 자연히 물러가 사대와 오장서 일어난 병은 안팎에 원인 있어

뛰면 신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이며, 맥이 침중하고 느슨하게 뛰면 폐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이다.

또 얼굴에 광택이 없고 손발에 땀이 없으면 간병의 모습이며, 얼굴색이 푸르면 심장병의 모습이고, 얼굴빛이 검으면 폐병의 모습이며, 몸이 가려워 없으면 신장병의 모습이고, 몸이 보리쭈렁이처럼 까슬까슬하면 비장병의 모습이다.

오행이 서로 상극하여 오장 병이 생기는 경우는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단지 오행과 오장 오근의 상속과 상극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해보면 동방은 오행으로 갑을목(甲乙木)인데 색깔은 푸르고 간에 소속되어 있으며, 남방의 병정화(丙丁火)는 검붉은 색으로 심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방의 경신금(庚申金)은 하얀 색으로 폐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방 인계수(壬癸水)는 검은 색으

로 신장에 속하고, 중앙 무기토(戊己土)는 황색이고 비장에 속하여 몸을 주관한다.

여기에서는 오근과 오장이 서로 상극하는 것에 대해 밝혔다. 그러므로 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반드시 육신(六神)의 병의 모습까지도 알아야만 된다.

가령 정신이 어두운 것을 많이 느끼면 간에 혼이 없는 것이고, 전후로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면 심장에 신(神)이 없는 것이고, 공포스럽고 생각이 뒤바뀐 병이 많은 경우는 폐에 혼(魂)이 없는 것이고,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웃는 경우는 신장에 지(志)가 없는 것이고, 생각이

취하고 버릴 것을 알아야 병도 자연히 물러가 사대와 오장서 일어난 병은 안팎에 원인 있어

뒤바뀌고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비장에 의(意)가 없는 것이며, 윤패한 마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음속에 정(情)이 없는 경우이다. 이상은 육신 가운데 병이 있는 모습이다.

如是四大五藏病患因起非一 病相衆多 不可具說 行者若欲修止觀法門 脫有患者 應當善知因起 此二種病 通因內外發動 若外傷寒 冷風熱 飲食不消 而病從二處發者 當知因外發動 若由用心不調 觀行違僻 或因定法發時 不知取興 而致此二處患者 此因內發病相

이와 같이 사대와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그 원인이 한결같지가 않다. 지대와 수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수대와 풍대가 공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지대 수대 풍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지수화풍 사대 전체가 화합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병의 모습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행자가 지관법문을 닦고 싶어 할 경우 혹 병환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병이 일어난 원인을 잘 알아야만 한다.

이상에서 설명했던 사대와 오장에서 일어난 두 종류의 병은 총체적으로 안과 밖에서 그 원인이 있어 활동하게 된다.

가령 외상으로 오는 경우는 한랭한 기운과 바람과 열기와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 병은 사대와 오장 두 곳을 따라서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외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또 마음 씩씩이가 조화롭지 못하고 수행이 정도를 위배해서 사된 것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선정이 발현할 때 취하고 버릴 것을 모르면 사대와 오장에서 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부의 원인으로 일어난 병의 모습이다.

대반야경에서는 말하기를 “수행이 오지(五地)에 오른 보살은 세간의 의술까지도 통달한다”라고 하였다.

세간의 의사들은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하여 병을 치료한다. 불법은 세간이 아니기는 하지만 세간을 떠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세간의 의술을 방편으로 빌려서 중생 몸의 병을 다스려야만 한다. 예를 들면 여래의 설법은 법약이 되어 중생 내면의 번뇌 병을 다스리는 것과도 같다.

수행자는 중생의 갖가지 병환에 있어서 그 인연을 잘 알아야만 하는데, 선정이 발현할 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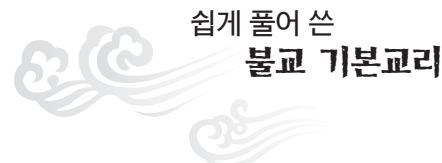
만일 취하고 버릴 것을 모르면 사대와 오장 등 두 곳에서 병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내부의 원인으로 일어난 병의 모습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스테이프 제작 보급

동원학원은 지상강의원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스지 관)와 호법유사의 비람서사>서 새로운 유식학의 집합어인 유식학의 신유식(신유식) 스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인과론(因果論)

사제법문(四諦法門)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 대인설법(對人說法)을 할 때 사실에서 거리가 먼 이론적인 측면은 굳이 답론하지 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유한한 것인지, 무한한 것인지, 또는 사람이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갖가지 목전에서 바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분명하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적인 하나의 예로 ‘중야합경’ 제60권 ‘전유경(箭喻經)’을 참고해 보면 부처님께서 열 가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낱알이 밖으로 드러내어 고통의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 즉 이고득락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중생의 고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사제(四諦)의 이치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사제’는 고(苦) 집(集) 멸(滅) 도(道)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또는 사성제(四聖諦) 또는 사진제(四眞諦)라고도 합니다.

‘제(諦)’는 진실한 이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제’란 네 가지 진실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현실세계의 결과인 고제, 고통의 원인을 말하는 집제, 고통을 떠난 결과로서 멸제, 멸제에 도달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도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①고제(苦諦)

고(苦)는 총론적으로 인간세상 일체의 고통을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론(大論)’에서는 “중생에게는 노(老) 병(病) 사(死) 등 세 종류 육신의 고통이 있으며, 또 탐(貪) 진(瞋) 치(癡) 등 세 종류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원하는 것을 구하려 하나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려 해도 떠나지 않는 것이 고통이며, 공명사업(功名事業)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며, 설사 요행히 성공을 했다 해도 그것을 다시 잃을까봐 근심하는 것도 고통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는 필경 일체 모두가 다 고통일 뿐(一切皆苦)이라고 파악하고 ‘고’야말로 유정세간과 기세간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두고 이 세계의 실상은 고통만이 진실한 모습이고 거짓 없는 이치라는 의미에서 ‘고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고의 모습을 분류하면 삼고팔고(三苦八苦) 내지는 한량없는 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속냉증, 감기, 안면홍, 여드름, 입술 부르름, 비염,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관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혈액, 스트레스, 적명(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환),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화순),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열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물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표교 / 자신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건강 북 찾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 우주의 기운과 인간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 5행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녀 구별 비법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강
-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5.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 사: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9. 1. 17(토) 오전 9시부터 ~ 1. 18(일) 오후 1시까지 (1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숙박도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 소: 송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스님!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9기,10기 모집]

• 9기 : 1월 9일 금요일반 오후 1시 • 10기 : 1월 15일 목요일반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책임 교육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9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송이 지면으로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은 유마 최면 연구소라는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송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보사 석가모니불.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매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수련기간 : 20회 (1회 1박2일 기준) 인원 10명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때, 쉼을 넘나 드십시오!